

특별법이 짓밟혔습니다 인양은 계획조차 없습니다 유가족은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 이게 나라입니까!

조사대상인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는 악마의 시행령이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대로라면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합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하고, 진상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정부가 다 통제합니다.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인 청와대를 비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600만명의 국민서명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곧 세월호 참사 1주기인데 정부는 인양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9명의 국민이 배 안에 있습니다. 충분히 인양이 가능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왜 인양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보내달라는 국민의 절규가 청와대에만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유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만나주겠다고던 약속도,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416시간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려는 유가족들이 봉쇄와 연행과 폭력에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정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특별법을 위반한 '위법 시행령'의 문제점

문제점1)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탈

사실상 위원회 전반을 운영하는 기획조정실장이 파견 공무원(1급 고위 공무원)입니다.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대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핵심 직위도 모두 파견공무원입니다. 조사대상인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의 역할은 강탈 당했습니다.

문제점2) 특별조사위원회를 식물위원회로

진상규명 업무 영역을 정부의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정부 조사 결과에 면죄부를 부여하게 됩니다. 정부안은 조직규모와 정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산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것만 조사하고 그마저도 일할 손발을 다 잘라버린 특별조사위원회. 그 이름이 무색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3) 당사자인 특조위 의견 철저히 무시

정부의 시행령안이 당사자인 특조위가 모른 채 공개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특조위의 시행령 제정 요구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권에서는 '세금도둑' 막말을 비롯해 예산 및 조직 축소를 요구하며 특조위를 흔들었습니다.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새누리당과 청와대,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내부문서를 유출하더니 '특별법 시행령'이 아닌 '해수부 시행령'이 탄생했습니다.

416시간
시민긴급행동


문의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sewolho416@gmail.com
후원 | 국민은행 479001-01-248152 정현곤(세월호대책회의)

 **행동1. 광화문 집중 농성과 청와대 항의행동**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국민촛불, 농성, 청와대 항의방문

 **행동2. 온라인 긴급행동**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및 전화 · SNS 항의 sewolho416.org/4046

 **행동3. 신문 전면광고 제작 긴급행동** 악마의 시행령 폐기 촉구 신문광고 제작 sewolho416.org/4060

 **행동4. 시민 가족 안산-광화문 도보행진** 4월4일 오전 9시 안산합동분향소 출발 sewolho416.org/4130

 **행동5. 촛불문화제 및 범국민대회 참여** 4월 16일 오후 7시, 17일 오후 6시, 18일 오후 4시 서울광장